

안전인이 말하는 2004년

2004년도갑신년이 밝아왔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승진, 금연, 운동 등 지난해 이루지 못한 계획에 다시한번 마음을 다
잡는다.
우리 안전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새해에 임하는지 그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자.

한 안전인의 小考

안전협회 대구지회장 병 대



안전협회에서 일한지도 어느덧 15년이 지나, 나 스스로를 안전인이라고도 칭하여 보았다.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완전한 안전인은 아니지만, 이제는 나를 달리 나타낼 만한 적절한 표현을 찾고자 함이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면서 안전인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

지난 1년 동안 국내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고는 대구지하철 참사였다. 2003년 2월 18일 10시경 나는 사무실(7층)에서 중앙로역 출구에서 분출되고 있는 시커먼 연기를 보고 있었다(그 시각 이미 인명 피해로만 보면 상황이 끝난 상태였음) 지하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바로 현장에 가 보았다. TV에서 본, 지금도 인터넷 화보에서 볼 수 있는 그 장면 그대로였다. 매캐한 연기와 냄새로 눈을 뜰 수가 없었는데, 그 냄새는 열차와 함께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살이 타는 냄새였다. 지금도 그 독특한 냄새를 잊을 수 없다. 그 후 지하현장에 몇 번 가 보았다. 비릿함이 섞여있는 또 다른 냄새와 벽의 그을음을 볼 때면 생각할수록 끔찍한 상황이 절로 그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참사 현장을 다녀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매스컴의 뉴스를 통해 소상히 알고 있을 것이다.

지하철은 가장 정확하게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발생한 이 화재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국내외에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지하철 이용자들이 열차안에 수동으로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는 장치가 어디에 있는지 살피게 되었으며, 지하역에서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를 이용자 모두가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단언하건데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다면(결코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이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선 열차안에 자욱하게 연기가 차 들어온다면, 이제는 모두가 그냥 그렇게 의자에 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수동으로 문을 열던가, 그렇지 못할 경우 유리창이라도 깨고 탈출할 것이다. 말하자면 실로 엄청난 사

람들의 생명과비용으로 전 국민이 값비싼 안전교육을 받은 셈이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 배우고 익힌 데로만 행동한다면 어떠한 잘못된 일도 행하지 않을 것이며,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비록 안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된다.

그런데, 지난 1년간의 산업재해(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감소 추세에 있던 산업재해율이 2002년도에 비해 증가되었다고 함)의 피해 규모를 보면 피재자수는 물론, 비용 또한 대구 지하철 사고와는 비교(사망자수만으로 10배를 훨씬 초과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는 대형사고가 아니면 매스컴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고, 각 단위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각각의 피해가 피재자들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이 매스컴에 나오는 피해자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우리 안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산업재해는 분명 증가할 것이고, 그 피해액도 엄청날 것이다. 비록 주목받지 못하는 직업(일)일지는 모르지만, 재해자와 가족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산재예방은 다른 어떤 일 못지 않게 소중한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 안전인은 새로이 적용되는 법규와 변화된 환경에 맞는 안전관리기법을 개발하고, 과거 발생했던 재해사례들을 전파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안전인의 역할인 것이다.

2004년에는 우리 각자가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단 1건의 재해(사고)라도 더 줄일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보람이자, 소명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마음의 여유로움을 갖자

한국TK(주)김진식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한잔의 차를 음미함은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고의 세월은 아니지만 반백년의 삶을 되짚어 보니, 삶이란 살아갈수록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체력이 예전같지 않아 자신감도 없어지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 발맞추기 쉬임없이 내달으니 어느덧 2004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숨쉴 틈 없이 바쁜 와중에도 가끔은 먼 하늘과 바다 저 끝 닿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 보는 여유로움이 필요하겠지요.



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삶의 여유로움을 갖기에 무척이나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른 세상에서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반평생을 살고 보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군요. 경제는 이미 바닥에 치달았고, 직장내에서도 내 책상이 언제, 어디로 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젊은 청년들은 직장

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회분속의 꽃은 뽑아 다른 화분으로 옮겨 심어도 며칠이 지나면 뿌리를 내려 잘 자라지만, 우리내 삶의 뿌리는 한번 뽑히게 되면 다시 뿌리내릴 터전을 마련하기까지 많은 힘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소외당한 우리의 이웃이 참 많습니다. 또한, 나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위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번 소외당한 이들이 다시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그들의 터전을 잡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만 들어 스스로 잘 자라 열매 맺도록 애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불안정한 사회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해바다로 달려갑니다. 늘 뜨는 해이지만 새해 첫날의 해는 우리들에게 남다른 감회로,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에서 이지요. 새해의 해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변함없는 그 모습에 새로운 다짐과 기대를 하게 합니다. 우리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새해 다짐한 계획이나 목표들 중에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인간은 '바쁘다. 바쁘다.' 하며 동분서주 뛰어나다니지만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는 해는 자신의 시간과 일정한 자태로 우리의 조급함을 바라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어제와 오늘을 잠시 생각하고,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잠자기 전 잠깐의 지성적인 명상으로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는 것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자와 실천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다릅니다. 직장안에서도 우리를 흥분시키고 격노케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요.

호흡을 가다듬고 잠시만 참아보십시오.

나를 격노케하고 화나게 한 사건의 화살이 다른 방향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잠깐의 여유와 명상이 삶의 모습을 보다 밝고 희망차게 바꾸어 갑니다. 이로 인한 무사고 또한 당연한 것이지요.

행복을 찾는 지혜, 오히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살아온 길을 가끔은 한번씩 되돌아보는 여유!

행복을 찾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의 여유!

결코 누가 줄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맞이하는 2004년 마음속에 大河를 가져보는 것이 어떨는지요?

아침에 드시는 한잔의 차. 우리의 삶을 살찌울 수도 있습니다.

갑신년! 반복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필립스전자자동차조명사업본부서 관 호

2003년의 아쉬움을뒤로 한채 갑신년 새해가밝았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희망에 벅찼던 한 해였으며,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

국가적으로는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해이기도 하고,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산업 현장구석 구석에서 혼신의 땀을 흘리며 밝은 미래를 일구어 나가는 근로자의 삶이 그대로 묻어 난 시간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도산, 합병, 구조조정 등 많은 변화와 개혁 속에 우리들의 위치를 위협당하고, 갈수록 높아만 가는 경쟁력이라는 파도 속에서 개개인의 입지는 점점 좁아만 가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경쟁력 저하에 따르는 현상으로 우리들의 경제력 손실이라는 측면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일하는 터전 곳곳에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산재해 있고, 이곳에는 안전사고와 재해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무의식 속에 지나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순간의 방심이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들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실수를 범하곤 한다. 단지 인간이기에 범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자위하려 하지만, 다가오는 그 어떤의 아픔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직 · 간접적인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한해 정부예산의 10%를 넘나든다고 한다. 이러한 손실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와는 달리 예방 ·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손실에 대한 아쉬움은 더욱 클 것이다.

경제적 손실도 중요한 일이지만 개개인의 산업 재해로 인한 파급 문제는 한 가정을 병들게 하고, 생존권 자체마저도 위협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로 당면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갖는다.

큰 문제로 대두될 때 마다 행사적으로, 습관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는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초를 다투듯 급변하게 돌아가는 현실속에서 개개인의 안녕은 그만큼 절실하게 느껴진다. 한번 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금은 여유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 해를 보내는 의미를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발로라 생각한다면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는 희망을 품는 어미 닭의 마음과 같이 소중한 것이다.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강하고 희망찬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갑신년 새해를 힘차게 열어 갔으면 한다.

